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보시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은 갈매기팀으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은 제비팀으로 경기에 출전하였다.

경기는 배구와 바줄당기기로 승부를 겨루었다.

먼저 배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훈련의 열참마다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량팀 선수들은 자기 팀의 기술체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운영하였다.

배구경기는 제비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어 바줄당기기경기가 진행되였다.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치열하게 벌어진 바줄당기기경기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열정을 불어일으켰다.

바줄당기기경기에서도 제비팀이 이겼다.

경기에서 우승한 팀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체육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경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

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2돐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광명성절경축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관현악 《장군님을 우리러 부르

는 노래》, 무반주합창 《훤년이 내리는데》, 기악3중주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바다의 노래》, 관현악 《매혹과 흥모》, 남성합창 《백두산바람 분다》, 《병사들은 행군해간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로 절정을 이룬 공연은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역풍이 불어치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철석같은 맹세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자주 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장내에 도도히 굽어졌다.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전선가까운 숲속에》, 관현악 《세계명곡모음》을 비롯한 외국곡들도 울랐다.

심장의 피를 세차게 뿜게 하는 공연, 세련되고 참신한 공연,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노래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쑥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흥모와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불어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공정을 콤퓨터화, 무인화, 무진화, 무균화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와 공장의 로동계급들, 려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힘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짧은 기간에 결사판철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3개월만에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 종합조종실, 사랑작업반, 파자작업반, 풍사량, 풍강정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전세위인들의 사랑의 력사가 어려있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의 생산공정현대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주었는데 그것을 성과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또 하나 관찰할수 있게 된것이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종합조종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

께서는 현장감시기능만을 수행하던 곳이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감시, 조종, 지령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지능화된 조종실로 전변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 당과류작업반들의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원로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무인화되고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당과류의 맛도 친히 보여주시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원료배합과 숙성, 반죽, 구이로의 온도조절 등을 자동화한 결과 맛과 질이 대단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진화, 무균

화가 실현되어 식료공장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으며 소음공해를 없애고 배풍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로동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공정현대화가 전반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의 현대화, 당에서 바라는 현대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인민군대가 이런 공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자랑이라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화를 위한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어 오늘과 같은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조건보장은 최고사령관이 전적으로 맡겼으니 생산을 정상화하여 여러가지 식료품을 군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공정현대화를 실현하여 최고사령관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공장의 로동계급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마식령스키장에 올라퍼지는 행복의 웃음소리 청소년학생들의 스키야영 시작

조선로동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마식령에서 청소년학생들의 즐거운 스키야영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천연산악지대에 대중체육관광기지로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에서 청소년학생들이 스키야영을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종합대학, 평양제4소학교의 학생들이 남만저 스키야영의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마식령호텔에 야영배낭을 품 학생들은 수천만년 잡자던 마식령에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은 감동속에 들었다. 청소년학생들은 스키교원들의 친절한 방조속에 스키

라기훈련에 들어갔다.

평양의 인민야외빙상장과 로라스케트장에서 신바람나게 달리던 솜씨그대로 스키라기훈련을 빨리도 러득한 소학생들, 익숙된 솜씨로 벌써부터 주로를 지쳐 내리며 민첩하게 스키를 타는 대학생들의 담찬 모습으로 하여 스키장은 시간이 갈수록 활력으로 쏠아번지였다.



본사기자

최근 북과 남사이에는 고위급접촉이 진행되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적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도 발표하였다.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고위급접촉과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우리 겨레에게 큰 기쁨을 주고있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북과 남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의 관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이어온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사랑하는 민요 《아리랑》의 선율속에 흘러넘치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과 정서를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민족처럼 절절하고 진하게 느낄수 없다. 마찬가지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우리 민족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들이 아직 태고의 원시림속에서 잠자고있을 때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시대, 문명시대를 개척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한 우리 민족은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북에 있던 남에 있던 5천여년의 력사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물질문화적재부마다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슬기와 재능, 민족의 단일성이 그대로 살아숨쉬고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그가 어디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 민족의 피와 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 공동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땀수 없이 련결되어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 우리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것은 유구한 력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 국절이치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기이다.

지금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요구로 나서고있다. 북남관계의 발전을 떠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북남관계발전은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근 70년간에 걸치는 민족분열의 력사는 북과 남이 대결의 지옥으로 얻을것이란 분열의 지속과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었다.

공화국이 중대제안에 이어 다시금 공개서한을 남조선에 보내고 북남사이의 줄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남측에 제의했던것은 바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국로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적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내외의 일치한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싣

천적으로 열어나갈 일념에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립장은 추후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이미 실천으로 확증되고있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특질이다.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은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